봉준호 "오스카 캠페인…열정으로 메꾼 게릴라전"

'기생충' 오스카상 주역들 기자회견

송강호 "최고 예술가들과 호흡하고 대화…내가 작아지는 느낌" 이정은 "영화 잘 찍으면 할리우드 안 가도 다 알아봐 주더라"

"영화가 긴 생명력을 가지고 1년 가까이 세계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마침내 또 여 기 다시 오게 돼서 기쁩니다."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 '기생충' 오스카 상 주역들이 아카데미 시상식 이후 국내 에서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19일 오 전 11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다.

이날 회견에는 봉 감독 이외에 송강호, 이선균, 조여정, 박소담, 이정은, 장혜진, 박명훈 등 배우들과 제작자인 곽신애 바 른손 E&A 대표, 한진원 작가, 이하준 미 다.

기를 들려줬다.

봉 감독은 "캠페인 당시 북미 배급사 네 온은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중소 배급사였 고, 우리가 처한 상황은 마치 '게릴라전' 같았다"고 했다.

이어 "거대 스튜디오나 넷플릭스 이런 회사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치는 예산으로, 열정으로 뛰었다. 그 말은 저와 강호 선배 님이 코피를 흘릴 일들이 많았다는 의미 다. 인터뷰만 600차례 이상, 관객과의 대 화도 100회 이상 했었다"고 험한 여정을 떠올렸다.

봉 감독은 한 외신 인터뷰에서 아카데 미 시상식을 '로컬'이라고 말한 게 아카데 미를 도발하기 위해 계획한 것이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제가 처음 캠페인을 하는 와중에 무슨 도발씩이나 하겠냐"며 웃었 다.

봉 감독은 전작들과 달리 '기생충'이 세 계적인 조명을 받은 이유에 대해 "이번 이 야기는 동시대 이웃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이야기인 데다, 뛰어난 앙상블의 배우들 이 실감 나게 표현한, 현실에 기반한 분위 기의 영화여서 더 폭발력을 가지게 된 것 이 아닐까 짐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마틴 스코세이 지 감독이 편지를 보내왔다"고 전한 뒤 "저 로선 영광이었다. 마지막 문장에 '그동안 고생했을 테니 쉬어라. 다만 조금만 쉬어 라. 나도 그렇고 다들 차기작 기다리니까 조금만 쉬고 다시 일하라'고 편지를 보내 주셨다. 감사하고 기뻤다"고 말했다.

봉 감독은 '기생충' HBO 드라마 제작 술감독, 양진모 편집 감독 등이 참석했 과 관련, "'기생충'이 애초 가진 주제 의식 과 동시대 빈부격차에 대한 이야기를 블 봉 감독은 이날 오스카 캠페인 뒷이야 잭코미디와 범죄 드라마 형식으로 더 깊 게 파고들어 갈 것 같다"고 귀띔했다.

봉감독은 "HBO '체르노빌'처럼 5~6편 으로 완성도 높은 밀도의 TV 시리즈 만들 려고 한다. 최근 캐스팅 기사로 틸다 스윈 턴, 마크 러팔로가 언급됐는데, 공식적인 사항은 아니다. 저랑 애덤 매케이 감독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방향과 구조에 대 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다. 올해 5월 '설 국열차'가 TV 시리즈로 방영되는데, 제 작에 들어가 5년 만에 방송되는 거 보면 '기생충'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내다

봉 감독은 CNN 기자가 '기생충'이 한 국 사회 어두운 면을 묘사하는데도 한국 관객들이 열광하는 이유를 묻자 "자주 들 었던 질문"이라며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

"제 영화는 우스꽝스럽고 코미디 적인 면도 있지만, 빈부격차의 현대사회가 적 나라하게 드러나는 씁쓸하고 쓰라린 면도 있다. 그걸 1cm라도 피하고 싶은 마음은



1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생충' 기자회견에서 봉준호 감독 (오른쪽부터), 배우 송강호, 박소담, 이정은, 장혜진이 박 수치고 있다.

없었다. 처음부터 엔딩에 이르기까지 그 런 부분을 정면 돌파했다. 관객이 불편하 고 싫어할까 봐 그런 두려움에 영화에 당 의정을 입혀서 달콤한 장식으로 영화를 끌고 가고 싶진 않았다. 최대한 우리가 사 는 시대에 대해 솔직하고 그리려고 했던 게, 대중적인 측면에서 위험해 보일 순 있 어도 이 영화가 택할 유일한 길이라고 생 각했다."

봉 감독은 '기생충' 흑백판을 내놓은 데 대해 "고전 영화나 클래식 영화에 대한 동 경 소위 말하는 로망이 있어서 만들었다" 면서 "흑백판을 통해 배우들의 미세한 표 정이나 연기 디테일, 뉘앙스를 훨씬 더 많 이 느낄 수 있다. 알록달록한 컬러가 사라 지니까 배우들의 표정과 눈빛에 더 집중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람 팁을 줬다.

봉 감독은 '기생충' 수상 이후 지자체에 서 그의 동상이나 생가 복원 작업 등을 추 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그런 이야기는 제가 죽은 후에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모 든 것이 지나가리라 생각하면서 그런 기 사들은 넘겼다"며 웃었다.

"'기생충'을 통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관객들에게 뛰어난 한국 영화를 선 보이고 돌아와서 기쁘다."

'기생충' 오스카상 4관왕의 주역 중 한 명인 송강호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이런 소감을 밝혔다.

송강호는 "지난 6개월간 최고 예술가들 과 호흡하고 대화를 나누고, 작품을 함께 봤다. 내가 아니라 타인들이 얼마나 위대 한지 알아가는 과정이었다. 저 자신이 작 아지는 느낌이었고, 그만큼 위대한 예술 가를 통해 많은 것을 느꼈다"고 벅찬 감동 을 전했다.

송강호는 '기생충'이 4관왕에 오를 때 소감을 묻자 "시상식장에서 봉준호 감독 바로 옆에 앉아있었는데, TV 화면을 보면 제가 굉장히 자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칸영화제 수상 때 제가 너무 과도하게 (축 하를) 하는 바람에 감독님 갈비뼈에 실금 이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는 얼굴 위주로, 어떤 상은 뺨을 때리고, 어떤 상

은 목덜미를 잡기도 했다"고 답해, 웃음을 끌어냈다.

다른 배우들도 수상 당시 감격 등을 들

이선균은 "너무 벅찼다. 4개 부문 상을 받고 보니까 아카데미가 큰 선을 넘은 것 같았다. 편견 없이 우리 영화를 좋아하고 응원해주신 아카데미 회원들에게 감사하 다"고 말했다.

장혜진은 할리우드에서 출연 제의가 온 다면 "'오브 코스, 와이 낫~ 아임 레디~' (of course, why not? I'm ready)라고 얘기해주고 싶다"고 했다.

이정은은 "미국과 유럽에서도 젊은 층 이 경제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기생충' 은 동시대적 문제를 재미있고, 심도 있게 표현했다. 선과 악은 없는데 누군가는 누 구한테 가해자가 되고 피해를 주고… 이 런 관계가 우리 인간군상과 흡사해 놀라 는 것 같고, 예상할 수 없는 스토리 덕분에 호응을 얻은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개그맨 유세윤-문세윤 봉준호-샤론 최 패러디 화제



봉준호 감독과 통역 샤론 최가 아카데 미를 비롯한 각종 국제영화제에서 보인 모습을 코미디언 문세윤과 유세윤이 패러 디한 영상이 화제에 올랐다.

유세윤은 지난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에 'Parodysite' (패러디사이트)라는 글 과 함께 봉 감독과 샤론 최를 패러디한 사 진과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봉 감독 의상부터 헤어스타 일, 말투를 그대로 재연한 문세윤과 긴 머 리에 다소곳한 모습으로 통역하는 샤론 최를 흉내 낸 유세윤 모습이 담겨있어 웃 음을 자아낸다.

특히 두 사람은 각종 시상식에서 봉 감 독이 밝힌 수상 소감을 패러디해 눈길을

문세윤은 "이제 내려가서 아직 반쯤 남 아있는 비건 버거를 마저 먹도록 하겠습 니다. 근데 혹시 근처에 맥도날드 있나 요?"라고 말했고, 유세윤은 이 말을 일부 는 정확하게 일부는 '이상한' 영어로 코믹 하게 통역했다.

아울러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 수 상 당시 봉 감독이 마틴 스코세이지를 인 용하며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 이라고 한 말을 "가장 개인적으로 좋은 젓 갈이 기장 창난젓이다"라고 패러디해 폭 소를 자아냈다.

봉 감독은 지난달 13일 열린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최우수 외국어영화상 을 받은 뒤 "멋진 감독님들과 같이 후보에 올라 더 기쁘다. 감사하고 이제 내려가서 반쯤 남은 비건 버거를 먹겠다"고 밝힌 바

TV프로그램

2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나쁜 사랑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맛 좀 보실래요
9	30 KBS 뉴스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55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민주통합의원모임〉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기분 좋은 날	00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민주통합의원모임 5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동행(재) 55 UHD 숨터(재)	00 포레스트(재)	45 출발! 비디오 여행 다이제스트	50 SBS 12 뉴스
12	00 KBS 뉴스 12	10 우아한 모녀(재)	00 12 MBC 뉴스 20 아이돌 타임 프리파라 50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톡톡 보험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꾸러기 식사교실(재)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테테루 테디베어 마을의 비밀 25 출동! 애니멀 레스큐 40 비밀의 바람숲			00 뉴스브리핑
3	10 이웃집 찰스(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나쁜사랑(재)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스페셜	00 기분 좋은 날	00 테마스페셜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10 총선 정강정책연설 〈더불어민주당〉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시노스톤 프라임 30 주간연예수첩	00 5 MBC 뉴스 25 시리즈M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우아한 모녀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최강 1교시(재)
8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더 게임:0시를 향하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10	00 다큐 인사이트 55 더 라이브	00 포레스트	05 포구만리 스페셜	00 맛남의 광장
11	35 UHD 숨터 40 KBS 네트워크 특선 올댓뮤직	10 해피투게더 1~2부	05 100분 토론	50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나는 트로트 가수다	45 나이트라인

07:00 출동! 슈퍼윙스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08:00 딩동댕 유치원

08:30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 08:45 방귀대장 뿡뿡이

09:0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09:30 다큐동화 달팽이

09:40 야옹멍멍 귀여워2 10:00 지식의 기쁨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오늘 뭐하고 놀지?

EBS₁

13:00 다큐 시선

13:55 특집다큐멘터리-가족의 탄생 14:45 다큐동화 달팽이(재)

14:55 용감한 소방차 레이(재)

15:10 출동! 슈퍼윙스(재)

15:25 트리푸톰

15:55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재)

16:10 예술아 놀자 16:25 페파 피그(재)

16:40 딩동댕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17:00 EBS 뉴스

17:20 해요와 해요

17:3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재) 17:45 올리 앤 문(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 하니

19:00 미라큘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19:30 생방송 판다다 20:00 4남매 쇼

20:30 자이언트 펭TV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인도네시아 휴먼 로드

-화산에 꽃핀 인생〉 21:30 한국기행

〈뜨끈뜨끈, 진국 기행 4부

그 산골, 겨울의 맛〉

21:50 다큐 시선

22:45 싱어즈:시대와 함께 울고 웃다

23:35 발견의 기쁨 동네책방

2 010-9790-8237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20일 (음 1월 27일 癸巳) 36년생 대하기 부담스럽다면 확실히 피해버리는 것이 낫



子

다. 48년생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오류가 보인다. 60년생 행운이 깃들기 시작하는 형국이로다. 72년생 모름지기 정성 을 다한다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느니라. 84년생 예상해 왔 던 구도와 동떨어지게 된다. 96년생 기존과 신규 간에 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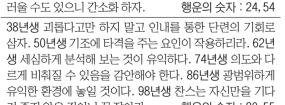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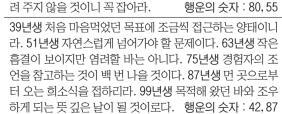
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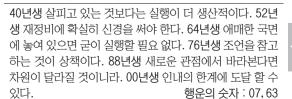
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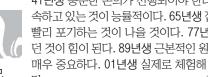
辰

과 조화가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46,98 37년생 진행하는 속도는 더딜지언정 뜻하는 바는 이루어질 것이니라. 49년생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은 다르다. 61년생 구태의연함에서 벗어나 창의적 독창성을 발휘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73년생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할 일이로다. 85 년생 관련시키는 요인이 발생하는 판국이다. 97년생 혼란스











42년생 정면 돌파가 최상의 방책이니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임하라. 54년생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자제하자. 66년생 미리 걱정 할 필요까지는 없으니 노파심은 버려도 된다. 78 년생 팔이 들이 굽지 내 굽지는 않는 법이다. 90년생 주저 하 지 말고 확실하게 붙잡아 두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02년생 임의적이어도 된다. 행운의 숫자: 37,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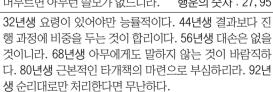
申

酉

戌

亥

31년생 경제적 이익을 보거나 뜻 깊은 영예로움이 있을 수 다. 43년생 발전을 위한 아픔은 감내 해야만 한다. 55년생 변화의 조짐이 보이니 확실히 대처하라. 67년생 절호의 찬 스이니 절대 놓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도다. 79년생 떨쳐 버리지 못 한다면 시간만 낭비할 뿐이다. 91년생 생각에만 머무르면 아무런 쓸모가 없느니라. 행운의 숫자: 27,95



행운의 숫자: 39,91



33년생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45년생 형세에 맞게 적당 히 조절해야 할 때가 되었도다. 57년생 지속적인 노력이 경 주 된다면 풍성한 결실이 있을 것이다. 69년생 알면서도 방 치한다는 것은 손실을 자초함을 알아야 한다. 81년생 상호 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리라. 93년생 객관적인 자세만이 활로 를 열어 주게 된다. 행운의 숫자: 03,73

34년생 구도가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46년생 면모 에 따라서 비중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58년생 목적에 부합 하는 속성들이 나타나고 있느니라. 70년생 상태를 정비하고 재충전해야 할 시기이다. 82년생 재편해야 할 필요성이 보 인다. 94년생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성이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36,50



35년생 판도는 자신만을 기다려 주지 않느니라. 47년생 내 부에서 찾는 것이 옳다. 59년생 매듭만 잘 풀린다면 순탄해 진다. 71년생 관계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83년생 적기에 실행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느니라. 95년생 관리는 평상시 에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행운의 숫자: 17,79



41년생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53년생 확실히 지 속하고 있는 것이 능률적이다. 65년생 집착할수록 손해이니 빨리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77년생 평소에 쌓아두었 던 것이 힘이 된다. 89년생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01년생 실제로 체험해 보는 것이 이상적이 행운의 숫자: 10,85